



## 25.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

**학습목표** ‘-고 말다’를 사용하여 어떤 행동이 끝내 실현되었거나 될 것임을 표현할 수 있다.

**학습내용** -고 말다



생각해 봅시다



- 한국의 국보 1호는 무엇입니까?
- 남대문과 동대문의 정식 명칭을 알고 있습니까?



본문

- 지나** 어제 남대문 시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가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.
- 유리** 아, 남대문 시장에 다녀왔구나. 물건이 다양하고 값도 많이 싼 편이지?
- 지나** 응. 구경도 하고, 쇼핑도 하고 아주 재미있었어.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고 말았어.
- 유리** 맞아. 남대문 시장은 사람도 많고 혼잡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. 동대문에도 가 봤니?
- 지나** 아니, 동대문도 재미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못 가 봤어. 그런데 동대문하고 남대문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 거야?
- 유리** 아~ 옛날에 서울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. 지금 그 성곽은 대부분 사라졌는데 동대문하고 남대문은 그 성곽에 있던 문이야. 원래 이름은 동대문은 ‘홍인지문’, 남대문은 ‘숭례문’인데, 동대문은 성곽의 동쪽에, 남대문은 남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동대문, 남대문 하는 거지.
- 지나** 그렇구나! 그런데 지금 그 문이 서울 안에 있는 걸 보니 서울이 더 커졌나 보구나.
- 유리** 맞아. 지금의 서울은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커졌어. 그리고 동대문과 남대문 근처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던 곳이야. 그게 커져서 지금의 시장이 된 거지.
- 지나** 아~ 옛날부터 큰 시장이었구나! 역사가 깊은 곳이었네. 다음에 시간이 나면 꼭 동대문에도 가 봐야겠어! 동대문 시장도 구경하고 동대문 앞에서 기념 사진도 찍고 와야지!

**도입 질문**

- 1) ‘국보’란 무엇입니까?
- 2) 한국의 국보에는 무엇이 있나요?
- 3) 남대문과 동대문에 간 적이 있어요?
- 4) 남대문과 동대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어요?

**본문 학습 순서**

- 1) 도입 질문을 한다.
- 2) 본문을 듣기 전,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.
- 3)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.
- 4) 이해 질문 1(포괄적인 내용 파악)을 한다.  
-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(답: 남대문과 동대문)  
- 지나는 어제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? (답: 남대문 시장)
- 5) 질문 4)의 답을 옆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.
- 6) 4)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. 그리고 이해 질문 2(세부적인 내용 파악)을 한다.  
- 지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(답: 길을 잃어버렸다.)  
- 서울의 넓이는 옛날과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까? (답: X.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커졌다.)
- 7) 새 어휘를 설명한다.
- 8)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.
- 9)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. (혼자 또는 짝지어)
- 10)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.

\*상황(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, 교실 상황 등)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.



## 내용 이해 질문

- (1) 동대문은 옛날에는 서울 안에 없었다. (O, X)  
 답 : (X) 동대문은 서울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문 중의 하나이다.
- (2) 남대문 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. (O, X)  
 답 : (O) 남대문 근처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다.



## 어휘

혼잡	混杂	둘러싸다	围绕
정확히	准确地, 准确	사라지다	消失。
가리키다	指	흔히	常常

## 혼잡 : 복잡

- 우리는 교통이 혼잡할 것을 생각해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왔다.
- 콘서트장의 혼잡은 너무 심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.
- 혼잡한 도로를 지나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.

## 정확 : 확실

- 나는 중국인 친구와의 회화를 통해 정확한 발음을 익힐 수 있었다.
- 내일 몇 시에 만날지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달라고 했다.
-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.

## 가리키다 : 손가락 같은 것으로 특별한 물건이나 장소, 사람 등을 알리다

- 길 가던 사람은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그쪽으로 가 보라고 했다.
- 삼촌은 넥타이를 가리키며 여자친구가 사 준 거라고 자랑을 했다.
-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곧 비가 오겠다고 하셨다.

## 둘러싸다 : 동그란 모양으로 싸다

-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다.
- 그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다.
- 한 아이를 둘러싼 채 여러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.

#### 사라지다 : 없어지다

- 여기 있었던 책이 어디로 사라졌지?
- 사라진 대륙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.
- 연기가 사라지면서 마술사가 다시 나타났다.

#### 흔히 : 많게, 주로

- 코스모스는 가을에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다.
- 소비자들은 흔히 광고 모델을 보고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.
- 그런 모양의 옷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.



## 문법학습

### -고 말다

어떤 행동이 끝내 실현되었거나 될 것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. 일을 이루어 냈거나 이를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표현하거나, 부정적이고 아쉬운 느낌이 있음도 나타낸다.

‘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말겠어.’: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.

- ① 숙제를 끝내야 하는데 잠이 들고 말았다.
- ②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.
- ③ 다음 달까지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말겠어요.
- ④ 이번 시험에서 꼭 100점을 맞고 말 거야.

의미적으로 ‘-고 말다’는 긍정적, 부정적의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, 수업에서 제시할 때는 이를 한꺼번에 가르치기 보다, 부정적>긍정적, 긍정적>부정적 등의 순서로 한 가지 의미씩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### 문장 만들기

#### ‘-고 말다’를 사용하여 알맞은 문장 만들기

- 나는 이번 축구 시합에서 공을 넣기 직전에 \_\_\_\_\_고 말았다.  
 백화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\_\_\_\_\_고 말았다.  
 커피인 줄 모르고 \_\_\_\_\_고 말았다.  
 내일까지 이 숙제를 반드시 \_\_\_\_\_고 말 거야.  
 자전거 타는 법을 열심히 배워서 꼭 \_\_\_\_\_고 말겠어.  
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\_\_\_\_\_고 말겠다.

### 대화 연습하기

1. **엄마:** 옷이 왜 그렇게 더러워졌니?
2. **지나:**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.
3. **지나:** 어머, 손이 왜 그래?
4. **유리:** 연필을 깎다가 다치고 말았어.
5. **지나:**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3kg을 빼고 말겠어.
6. **지호:** 꼭 성공하길 바란다.
7. **유리:** 왜 그렇게 요즘 기운이 없니?
8. **지나:**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말았어.



## 심화학습

### 1. 어떤 행동이 끝내 실현되었거나 될 것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.

- 친한 친구와 다투고 말았다.
- 그 소문이 결국 학교에 퍼지고 말았다.
- 이번 시험에서 꼭 100점을 맞고 말 거예요.
-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고 말겠어.

### 2.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하고, 반면에 이루었거나 반드시 이루겠다는 화자의 긍정적인 의지를 나타낸다.

-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말았다.
- 코감기에 걸려서 상한 음식인 줄 모르고 먹고 말았다.
-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말겠어.
- 그 영화를 꼭 보고 말 거예요.

### 3. 화자의 긍정적 의지를 나타낼 때 주어는 1인칭이어야 한다.

- 나는 달리기에서 꼭 1등을 하고 말겠어. (○)
- 수미는 달리기에서 꼭 1등을 하고 말겠어. (×)

### 4. '-고야 말다'를 사용하여 강조를 나타내기도 한다.

- 기차가 떠나고 말았다.
- 기차가 떠나고야 말았다.
- 오늘까지 숙제를 끝내고 말겠어.
- 오늘까지 숙제를 끝내고야 말겠어.

행동이 이미 실현된 경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만, 실현될 행동의 경우에는 주로 긍정적인 의지를 나타낸다.

실현된 행동의 예:

-나는 결국 1등을 하고 말았다.

(긍정적)

-나는 결국 꼴찌를 하고 말았다.

(부정적)

실현될 행동의 예:

-나는 1등을 하고 말겠다.



## 1. 빈 칸에 알맞은 말을 <보기>에서 골라 쓰십시오.

사라져서    둘러싸고    정확히    혼잡    흔히

- 1) 그곳은 높은 산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어 더욱 아름답다.
- 2) 그 음식점은 음식은 맛있지만 사람이 많아서 매우 혼잡하다.
- 3) 그 사람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.
- 4) 이런 스타일의 옷은 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.
- 5) 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.

해설 : 1) 그곳은 높은 산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어 더욱 아름답다.  
 2) 그 음식점은 음식은 맛있지만 사람이 많아서 매우 혼잡하다.  
 3) 그 사람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.  
 4) 이런 스타일의 옷은 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.  
 5) 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.

## 2.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.

- 1) 저는 어제 지하철에서 잠을 자다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\_\_\_\_\_.  
 ① 있어요  
 ② 말았어요  
 ③ 말겠어요

해설 : ①은 행위의 진행을 나타내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. ③의 ‘-고 말겠어요’는 미래의 의지를 표현한다.

- 2) 지호: 동생한테 어제 너무 미안했어.  
 민: 왜? 무슨 일 있었어?  
 지호: 나도 모르게 동생에게 \_\_\_\_\_.  
 ① 화를 내고 말았거든  
 ② 화를 낼 걸 그랬거든  
 ③ 화를 내 치웠거든

해설 : ②와 ③ 모두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느낌의 이 글과 어울리지 않는다.

- 3) 길이 미끄러워서 \_\_\_\_\_.  
 ① 넘어지기로 했어요  
 ② 넘어지고 말았어요  
 ③ 넘어지기는 틀렸어요

해설 : ①의 ‘-기로 하다’는 약속이나 결심의 표현이므로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.  
 ③의 ‘-기는 틀리다’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은 내용상 맞지 않는다.

### 1. 어휘 연습

부사 ‘흔히, 정확히’는 문장 만들기를 하여 부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.  
 ‘흔하다’, ‘정확하다’의 상태동사도 있음을 알려 준다.  
 4) =없어지다, 달아나다

### 2. 문법 연습

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.

[~고 말다]

- 행동의 실현
- 긍정적, 부정적 의미 양존
- 시제에 의해 의미가 달라짐.

학습자가 답항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.

학습자가 문장을 직접 연결할 때는 학습자 급에 알맞은 문형과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.

예) 고급 학습자

①나도 모르게 동생에게 화를 냈어.

②나도 모르게 동생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.

①, ② 모두 의미상 맞는 문장이지만 고급 학습자는 ①보다 ②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.

## 3. 대화에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

1) 엄마: 등산 잘 다녀왔니? 재미있었지?

민: 힘들었어요. \_\_\_\_\_

- ①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거든요.
- ② 등산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.
- ③ 엄마도 아시다시피 제가 등산을 좋아하잖아요.

해설 : 등산이 재미있었냐는 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힘들다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했다. ②와 ③은 긍정적인 내용이므로 어울리지 않는다.

2) 지호: 여기 있던 초콜릿이 어디로 갔지? 내가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.

지나: 오빠 미안해. \_\_\_\_\_

- ① 요즘 왜 자꾸 초콜릿을 먹어 대?
- ② 내가 너무 배고파서 먹고 말았어.
- ③ 그 초콜릿이 오빠 초콜릿인 줄 알았어.

해설 : 지나는 오빠의 초콜릿을 먹어서 사과를 하고 있다. ①은 지나의 사과와 어울리지 않고 ③은 의도성이 없음을 보이려면 '오빠 초콜릿인 줄 몰랐어'가 맞는다.

3) 유리: 개가 아프다더니 요즘 어때? 좋아졌어?

지나: \_\_\_\_\_

- ①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.
- ② 힘들더라도 잘 돌봐 주세요.
- ③ 우리 개가 아플 리가 없어요.

해설 : 아팠던 개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. ②는 질문에 맞는 대답이 아니다. ③의 '-(으)ㄴ 리가 없다'는 그럴 이유나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. 개가 아프다는 얘기가 먼저 있었으므로 내용상 맞지 않는다.

## 3. 대화 연습

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.

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.

예)

A. 지난 주에 등산 잘 다녀왔니? 재미있었지?

B. 재미있기는요. 다녀 와서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.

B'. 아주 재미있었어요. 다음에는 혼자 산꼭대기까지 가고 말겠어요.

## 과제

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까? 그런 경험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글을 써 봅시다. 단, 다음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- ‘-고 말다’를 사용해야 한다.
- 문어체(‘-다, ㄴ/는다’)로 써야 한다.
- 400~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.

## 예시답변

나는 예쁜 개를 키운 적이 있다.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갑자기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.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었지만 개는 먹지 않았다. 병원에 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. 나는 약도 먹이고 열심히 돌보았지만 개는 점점 말라갔다.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렇게 죽고 말았다. 10년 동안 키운 개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 슬펐다.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울고 말았다.

<이하 생략> .....

## 도입 질문

- 과거에 실패했던 일, 원하지 않은 결과가 생겼던 일을 생각해 본다.
- 무슨 일이 있었는가?
-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?
- 그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새롭게 결심한 것은 없었는가?

## 작문 지도

-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.
- (직접 경험한 일, 문형, 문체, 길이)
-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. (처음-중간-끝)
-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.
-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.
- 맞춤법, 띄어쓰기,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.



## 함께 풀어봅시다

### 1. ‘-고 말다’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.

- 1) 엄마: 어? 여기 있던 빵이 어디로 갔지?  
지나: 헤헤. 제가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\_\_\_\_\_.
- 2) 민수: 어제 시험 공부 많이 했어?  
지호: 아니. 공부 하다가 졸려서 그냥 \_\_\_\_\_.
- 3) 민: 지나야! 여기 책상 위에서 내 돈 못 봤어?  
지나: 오빠, 미안해.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\_\_\_\_\_.
- 4) 엄마: 민아! 물고기 수가 좀 적어진 거 같아.  
민 : 네, 요즘 제가 바빠서 밥을 잘 안 줬더니 \_\_\_\_\_.
- 5) 지호: 민아! 요즘 왜 아르바이트를 해?  
민 :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느라 용돈을 \_\_\_\_\_.

### 2.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.

- 1) 영화를 보다가 너무 슬퍼서 \_\_\_\_\_. (울다)
- 2) 책을 읽다가 너무 피곤해서 \_\_\_\_\_. (자다)
- 3) 친구와 전화하다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\_\_\_\_\_. (웃다)
- 4)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보다가 \_\_\_\_\_. (포기하다)
- 5) \_\_\_\_\_.



## 함께 풀어봅시다 (답안지)

### 1. ‘-고 말다’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.

- 1) 엄마: 어? 여기 있던 빵이 어디로 갔지?  
지나: 헤헤. 제가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말았어요.
- 2) 민수: 어제 시험 공부 많이 했어?  
지호: 아니. 공부 하다가 졸려서 그냥 자고 말았어요.
- 3) 민: 지나야! 여기 책상 위에서 내 돈 못 봤어?  
지나: 오빠, 미안해.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쓰고 말았어.
- 4) 엄마: 민아! 물고기 수가 좀 적어진 거 같아.  
민 : 네, 요즘 제가 바빠서 밥을 잘 안 췄더니 죽고 말았어요.
- 5) 지호: 민아! 요즘 왜 아르바이트를 해?  
민 :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느라 용돈을 다 쓰고 말았어.

### 2.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.

- 1) 영화를 보다가 너무 슬퍼서 울고 말았다. (울다)
- 2) 책을 읽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말았다. (자다)
- 3) 친구와 전화하다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. (웃다)
- 4)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보다가 포기하고 말았다. (포기하다)
- 5) \_\_\_\_\_.